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양심은 우리를 지킨다

최 효선

나에게는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어렸을 때, 동생은 한없이 미운 존재였다. 이 미움은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아들이 아니네.”

엄마 배에서 막 나온 아기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들었던 소리다. 그 후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던 어른들의 사랑은 동생에 대한 무의식적인 미움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한창 차별이라고 느꼈을 시절엔 도서관에서 내 이야기 같은 동화를 읽으며 영영 울었다. 나는 동생보다 공부 잘했고, 상을 더 많이 받았고, 흔한 사고 한번 치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가 동생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의식했을 것이다. 어린 날의 스러지는 기억이 있다. 사소한 다툼이 번져 빛바랜 벽지가 뜯어지도록 싸웠던 날, 동생을 때리던 손끝에는 내 나름의 서러움이 묻어있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던 우리는 아침에나 생사를 확인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한 발짝 떨어지니 다들 일도 없었다. 동생과의 경쟁보다 사회에서 살아남는 일이 더 치열하고 중요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동생은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난생 처음 보는 짧은 머리를 하고선 안절부절 못했다. 입대하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당일이 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 울어야하나 웃어야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내 일을 했다. 그날도 난 시험기간이라 바빴고 ‘어차피 나중에 보겠지’라는 생각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동생은 “잘 지내라.”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나도 분명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너무 커서 쉽게 나오질 못했던 것 같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성인이 되고 깨달은 많은 것들 중 하나이다. 군대에 있는 동생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벌써?’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나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따르릉’ 평소라면 차단시켰을

이상한 번호로 온 전화에 모든 가족이 달려들어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이 빠진 낮은 소리였다.

“엄마, 나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자겠어. 코도 막혀서 숨을 잘 쉬지 못 쉬겠어. 의무대 갔더니 축농증이라면서 알약을 잔뜩 줬는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공병대 배치 받았는데 폭발물제거반이 되었어. 다음 주에는 실물 지뢰를 만져. 위험 할 수도 있다는데 잘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잠이 안 와서 전화했어.”

“자대는 화천이야. 면회 올 거지? 최전방이라 GOP 근무 할 거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우리 집은 초상집이 되었다. 고생 한번 안 시키고 키운 아들 걱정에 부모님은 아무 일도 못 하셨다. 평소에 감기 한번 안 걸리던 녀석이 앓는 소리를 하자, 모든 게 잘못될 거 같았다. 더욱이 간간히 걸려오는 전화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나라도 군대를 다녀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주변에 물어 볼 곳도 없었다. 밖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니! 그렇게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군대인데 우리 집에만 생긴 비극인 것 같아 답답했다. 이런 내 걱정을 들은 친구가 한소리를 했다.

“그거 뺄 수 있을걸? 내가 아는 친구도 이번에 최전방 배치됐거든? 흔히들 아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 왜 요즘 거기서 폭탄사고 나고 그랬잖아.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인맥이 닿아서 그 친구를 빼줬대. 개 그래서 지금은 후방에서 근무한다던데.”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다들 그러는데 뭐, 동생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군복무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깐’

때마침 동생과 같은 곳으로 배치되었던 동기도 힘을 써서 다른 곳으로 가

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던 부모님은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드셨다. 퇴직을 앞둔 군인, 대기업 이사, 군부대 행정 공무원 등등. 전화기가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이 간절히 붙드신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작아보였다.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공정하게 살아 보겠다던 나도 밤마다 수능 발표 때처럼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함이 닿기를. '동생이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아픈 모습의 동생이 꿈에 나왔다. 꿈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동생을 바라만보고 있었다. 괜스레 걱정이 되는 나날이었다.

며칠 뒤 부모님은 동생의 군번이 어떻게 되냐는 전화를 받으셨다.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자 기분이 이상했다. 마음 속 누군가가 동생은 괜찮아질 것이니 남들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확실히 기쁘지 않았고 씩씩했다. 부모님도 머뭇거리시더니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잠깐 생각을 하던 동생은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내가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하는 거잖아. 이왕 군인이 된 거 그 역할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 어휴, 이렇게 빠져 나간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내 스스로도 그건 싫어. 주변에 그런 일 보면서 나도 생각해봤는데 피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게 정당한 방법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잖아. 여기는 부잣집 아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할 수 있는 거지. 나 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군인인데 뭘 못하겠어.”

“근데 괜히 엄마, 아빠 걱정 끼쳐 드린 것 같아 미안하네. 나 많이 나아졌어. 동기들도 좋고 선임들도 좋아. 훈련이 고되긴 하지만 지낼만 해. 모두들 잘 지내지?”

생각보다 충격적인 통화였다. 그리고 행복한 통화였다.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 스스로 부끄러운 일 한번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부모님에게 그 동안의 전화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걸 막을 용기는 없었다. 그 대신 부모님을 꼭 닮은 동생이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지킨 양심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항상 어렸던 동생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진짜 군인이 되었다. 물론 춥고 험악한 곳에서 고생은 하겠지만 정신만은 누구보다 건강하기에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동생의 시간을 알리는 '벌써'가 몇 번 반복된 지금, 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생은 '인기짱'이 되어 있다. 6.25때 무전병이셨던 할아버지처럼, 부대 내 무전병 역할까지 도맡아 한다며 자랑하는 요놈은 많이 개선된 군대 시스템과 안전에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장을 달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 동생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아 보인다. 다행히 귀한 아들의 무사에 우리 집도 평화로워졌다. 지난시간을 되돌아보면 공정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지킨 양심이 나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야겠다.

더불어 동생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동안 느꼈던 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칠칠맞게 숙제를 놓고 온 날에 우리 반 교실 앞에 서있던 동생,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이면 엄마 몰래 같이 치킨을 나눠먹던 동생, 아무리 싸워도 자고일어나 함께 운동하러 다니던 동생이었다. 내가 문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아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서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내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다. 동생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고 지금도 멋진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동생이 돌아온다면 '네가 지킨 많은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